

# 上海 근대 도시사 연구의 공간적 맥락<sup>1)</sup>

김승욱(충북대 역사교육과)

## I. 머리말

도시가 인류 삶의 주요 양식이자 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sup>2)</sup> 자연히 도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개혁개방 이후 도시화의 진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 연구의 비중이 강화되어왔다. 그 중에 상해에 대해서는 “上海學”이라고 지칭될 만큼 집중적인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上海史는 그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도시사는 도시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역사학 분야다. 도시사 연구들은 그 구체적인 주제와 방법론에 있어서 실로 多岐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도 다양해서 그것을 모두 앞에 펼쳐놓고 보면, 간혹 과연 도시사의 학문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새삼스레 던지게도 된다. 도시사가 역사학의 한 분야로서 그 시민권을 보다 확고히 승인받기 위해서는, 도시사의 학문적 의의와 접근 방식에 대해 초점을 모아가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지금까지 도시사의 내포는 그 분석대상인 도시의 공간성 개념에 대한 추상 수준의 제고와 함께 풍성해져왔다. 사실 역사학은 본래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는 데 익숙한 학문으로, 그 속에는 지리적 규정으로서 도시를 무대로 한 역사 연구들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그 논의를 심화시켜오면서 도시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또한 그것이 다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인식을 점차 수용해왔고, 그러한 도시의 공간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은 도시사의 내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오늘날 지구화의 진행 하에서 도시의 공간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물적, 인적으로 초국적 교류가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도시는 그러한 교류 회로의 결절점으로 보다 복잡해진 공간지형 위에 놓여지고 있다.<sup>5)</sup> 이 점에서 도시의 공간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왔는가를 적절히 설명해내는 것은 도시사 연구에서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상해사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그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축적해왔고 또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는가. 이에 본고에서는 상해 근대 도시사 연구에서 공간적 맥락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향후 중국 근대도시사 연구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전망해 보려고 한다.<sup>6)</sup>

1) 이 글은 『중국학보』 제63집(2011.6.)에 게재된 같은 제목의 원고를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일부 수정한 원고입니다.

2) 도시 인구는 19세기 초 2%에 불과했지만, 유럽, 미주의 경우 현재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의 경우 2030년 경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全球化地圖:認識當代世界空間』,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p.20

3) 2008년 9월 한국도시사학회의 성립은 우리 도시사 학계의 성장을 반영한다. 향후 도시사 연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들의 상호논의를 통해서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을 줄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유기, 「한국의 도시사 연구 지형도와 향후 전망」,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창간호, 2009.6. 참조

4) 배영수, 「도시사의 최근 동향 -“역사의 공간적 차원”-」, 『서양사연구』 제17집, 1995 참조

5) 마이클 피터 스미스 지음, 남영호 등 옮김, 『초국적 도시이론』(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번역총서2), 한울아카데미, 2010 참조

## II. 개혁개방 이전의 상해사 연구

중국 근대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서구적 충격이라는 외적 역량의 작용은 압도적으로 강조되어왔다. 왜냐하면 서구 제국주의의 외압이 이 지역에서 도시화와 도시근대화 간의 맥락을 단절시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형성 과정과 그 근대도시로의 전환 과정은 본래 연속적 맥락 위에 있는 것이지만, 제국주의는 중국에서 양자 간의 연결성을 크게 약화시켰다.<sup>7)</sup> 상해 지역의 경우도 縣治가 두어진 元代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700년 이상의 도시화 역사가 있지만,<sup>8)</sup> 그러한 도시 전통이 도시근대화의 흐름에서 그리 주목되지는 않았다.

근대 상해의 도시공간은 서구 세력의 주도 하에 건설된 공공조계, 프랑스조계 등의 ‘식민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것은 현성 등 기존의 도시공간과 완전히 이질적인 도시공간이었다. 양자는 단지 물리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관념적 충돌을 반영했다. 중국 측의 입장에서 조계는 이른바 “華洋別居”를 위해 배치된 공간이었다. 요컨대 조계의 설치의 서구인들을 그들의 ‘文明’ 공간인 현성으로부터 분리하는 중국의 “中華의”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서구인의 시각에서 현성은 근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맹아를 가진 도시공간이 아니었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중국 도시에 대한 언급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서구인들에게 중국의 도시는 행정적 기능을 넘어서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기초를 제공하는 경제적 기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sup>9)</sup> 따라서 그들은 현성과 완전히 별개로 새로운 도시공간인 조계를 건설했던 것이다.<sup>10)</sup>

1920-30년대 상해는 “동방의 파리”, “동방의 뉴욕” 등으로 지칭될 정도로 변형을 구가했던 바, 그것은 조계 공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 이면에서는 전통/중국, 근대/서구를 각기 대변하는 이질적인 두 도시공간이 선명히 대비되고 있었다. 이러한 대비 구도는 당시의 저술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

이 시기 중국 측의 역사적 저술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민당 하에서 1932년에 성립, 柳亞子의 지도 하에서 이 지역의 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연구했던 上海市通志館의 활동이다.<sup>11)</sup> 상해시통지관은 『상해통지』의 편찬을 위해 신문, 잡지, 서구 언어로 된 서적, 비첩, 당안 등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에 1936년에는 『上海市通志考』의 초고 11편을 작성했다. 또한 『大晚報』에 “上海通”이라는 컬럼을 개설해 상해의 역사지리, 風土人情 등을 흥미롭게 소개했는데, 그 일부는 후에 『上海研究資料』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1933년, 34년에는 『上海市通志館期刊』을 季刊으로 4기씩 출간했다. 그들은 연감도 펴냈는데 항일전쟁 전에 1935, 1936, 1937년 등 3기의 『上海市年鑑』을 출간했다. 또한 상해의 고적들을 영인해 『上海志』 등을 펴내기도 했다. 상해시통지관의 자료,

6) 熊月之, 「20世紀上海史研究」, 『上海行政學院學報』2000.1; 熊月之, 「上海學平議」, 『史林』 2004年 第5期; 熊月之, 張生, 「中國城市史研究綜述(1986-2006)」, 『史林』 2008-1; 盧漢超, 「美國的中國城市史研究」, 『清華大學學報』 2008年 制1期(第23卷); 전인갑, 「상해사-노동사 연구의 신경향과 전망」, 『中國現代史研究』 제5집, 1998; 전인갑, 「도시사 연구 방법론」, 『인천학의 탐구』, 인천학연구원, 2007

7) 何一民, 「城市史」, 『五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 上海書店出版社, 2000, pp.314-316

8) 上海研究中心, 上海人民出版社 編, 『上海700年』, 上海人民出版社, 1991

9) Max Weber, *The City*, Martindale and Neu-wirth trans., 1958; *The Religion of China*, HH Gerth trans., 1951

10) 이 점에 있어서 프랑스조계는 현성 공간의 위상을 의식해 그에 연접한 공간에 조계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공공조계와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도 행해진다. [法]梅朋 傅立德 著, 倪靜蘭 譯, 『上海法租界社』,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7, pp.12-39

11) 김승욱, 「上海市通志館(1932.7-37.11, 1945.11-46.12)과 上海史 연구」, 『中國史研究』 제73집, 2011.8.

연구들은 오늘날까지 상해사 연구에서 뺄 수 없는 기본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sup>12)</sup>

한편 외국인 거류민, 학자들의 저술들도 많이 남아 있다. 여행객, 이주자들을 위한 개괄적인 소개서,<sup>13)</sup> 지리, 조류, 기상 등 생태 환경에 대한 연구<sup>14)</sup>를 비롯해서, 통화 등 경제 활동의 조건에 관한 연구,<sup>15)</sup> 조계 시정에 대한 연구,<sup>16)</sup> 외국교민의 생활 조건과 환경에 대한 연구<sup>17)</sup> 등 다양한 분야의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Dyce, Charles M.의 조계에서의 거류 회고,<sup>18)</sup> Wright, Arnold의 홍콩, 상해 등 통상항에 관한 기록<sup>19)</sup> 등과 같은 직접 경험과 C. A. Montalto de Jesus,<sup>20)</sup> George Lanning,<sup>21)</sup> Charles B. Maybon, Jean Fredet,<sup>22)</sup> F. L. Haeks Pott<sup>23)</sup> 등의 상해사 개설은 주목되는 저작들이다. 이러한 저술들은 당시 이 지역에 진출하는 서구인들의 실용적 요구를 반영하며, 그 속에 어느 정도 그들의 서구적 편견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근대도시 상해의 형성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한 기록으로서, 오늘날 상해사 연구 특히 사회사, 일상사 등과 관련해서 새롭게 그 사료적 가치가 조명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록들은 상해사 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사료들이다. 특히 상해시통지관과 같은 체계적인 자료 수집, 편찬 작업이 갖는 의의는 따로 조명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시사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의 저작들은 동시기 서구의 도시사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실험실”로서 이 도시의 형성, 변모 과정을 전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시점

12) 袁燮銘, 「上海市通志館籌備始末」, 『檔案與史學』 2002年 第6期; 胡道靜 口述, 袁燮銘 整理口述, 「關於上海通志館的回憶」, 『史林』 2001年 第4期 상해시통지관의 활동은 지방지 편찬의 전통과 관련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5년 12월 출간된 『상해통사』는 한편으로 상해시통지관의 작업을 70년 이후 완성했다는 의미도 있다. 熊月之 主編, 『上海通史』, 總15卷, 上海人民出版社, 1999

13) *Guide Book to Shanghai and Environs Containing All Necessary Information for Tourists and Others*, Shanghai, The Hotel Metropole, the Oriental Press, 1903; Kahlar, William R., *Rambles Round Shanghai*, Shanghai, The Union, 1905; Gamewell, Mary Ninde, *The Gateway to china*, Fleming H. Revell Companu, 1916; Gow, W. S. P. Comp, *Gow's Guild to Shanghai*, North-China Daily News & Herald, 1924; *The Little Blue Book of Shanghai*, Isida, 1931; *City Directory of Shanghai*, Shanghai Millington, 1931; *Sightseeing In and Around Shanghai*, American Express Company Inc., 1933; Karns, Maurine & Patterson, Pat, *Shanghai: High Lights, Low Lights, Tael Lights*, Shanghai, Tridon, 1936

14) Cressey, George Babcod: *The Geology of Shanghai*, 1928; Wikinson, Edward Sheldon, *Shanghai Birds, a Study of Bird Life in Shanghai and the Surrounding Districts*, Shanghai, North-China Daily News & Herald, 1929; Malraus, Andro, *Storm in Shanghai*, London Methuon, 1934

15) 支那經濟研究會, 『上海之通貨』, 內山書店, 1928; 織岡芳太郎, 『上海港』, 三井物産上海支店, 1929

16) 滿鐵庶務調査課, 『上海外國居留地行政概論』, 大聯出版, 1926; *La Concession Francaise de Changhai*, Paris, Recueil Sirev, 1934

17) Yang, Simao & Tao, L. K., *A Study of the Standard of Living of Working Families in Shanghai*, Peking, Institute of Social Researches, 1931; Jiganoff, V.D., *Russians in Shanghai*, Shanghai, 1936; Cheng, Swen Lan, *An Intensive Study of the Fu Shin and the Tsung Sung Refugee Camps in Shanghai*, University of Shanghai, 1936

18) Dyce, Charles M., *Personal Reminiscences of Thirty Year's Residence in the Model Settlement*, Shanghai, 1870-1900, Chapman & Hall, 1906

19) Wright, Arnold, *Twentieth Century Impressions of Hong Kong, Shanghai, and Other Treaty Ports of China: Their History, People, Commerce, Industries, and Resources*, London, Lloyd, 1908

20) C. A. Montalto de Jesus, *Historic Shanghai*, The Shanghai Mercury, Limited, 1909

21) George Lanning, Samuel Couling, *The History of Shanghai*, Part 1, Kelly. & Walsh, Limited, 1921; Part 2, 1923

22) Charles B. Maybon, Jean Fredet, *Histoire de La Concession Francaise de Changhai*, 1929.

23) F. L. Haeks Pott, *A Shoth History of Shanghai, Being an Account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Settlement*, Kelly & Walsh, Limited, 1928

을 확보했다고 하기 어렵다. 서구에서 자연화된 대상으로 도시를 분석할 학문적 관점을 확보해갔던 것과 비교하자면,<sup>24)</sup> 상해의 중국인과 서구인들은 이 도시공간을 관찰함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경계가 유독 크게 부각되어 있었다. 중국인들은 중국의 도시 전통과 전혀 다른 서구인들에 의해 건설된 새로운 도시의 형태에 대해, 또 서구인들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획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구하는 차원에서 각기 이 도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시선은 엄밀히 말해 도시 자체에 있었다기보다 이 도시의 공간을 분절화시키는 주요 원리로서의 민족, 국가적 경계와 그 경계 원리 속에 포착된 특정 공간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중국인들은, 조계의 번영과 화계의 낙후화로 두 공간의 대비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습과 극복의 상반된 두 가지 동기를 동시에 가지고 조계 공간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현성, 갑북 등 화계 지역에서 진행된 각종 도시 건설, 정비 사업과 자치운동은 조계와의 격차를 줄여가려는 학습의 요구를 반영한다. 그렇지만 “救亡이 啓蒙을 압도해가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상해는 五四運動(1919년), 五卅運動(1925년) 등 민족주의운동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었고, 조계 회수와 같은 민족주의적 과제가 부각되었다. 이에 조계회수 등 민족주의적 과제와 관련해서 조계 제도가 야기한 도시공간의 기형화를 지적하는 분석들이 집중 행해졌다.<sup>25)</sup>

이렇게 상해의 도시공간은 중국-서구, 전통-근대의 이원적 구도를 확정하고 또한 상해 주민들의 사회적 활동도 그러한 구도 속에 수렴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연구들을 통해 밝혀질 것이지만 사실 이 시기 상해의 공간적 구도는 국내, 국외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해 온 다양한 집단들이 각축하는 가운데 형성되어갔고, 그런 가운데 끊임 없이 변형되고 있었다. 개항장으로서 국내무역과 국외무역을 연결하는 결절점으로서 성장해갔던 상해는, “인종 박람회”로 묘사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국적, 관적(貫籍)의 인구들이 상호 경쟁하던 생태적 실험장이었다. 물론 제국주의 하에서 조계와 화계 공간의 이원적 분리가 이들의 사회적 활동을 규정하던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활동과 그 반영으로서의 공간적 변형은 그러한 이원적 구도 속에서 모두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도시에 개입한 여러 사회집단과 그들이 형성해낸 공간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이 도시에서 그들의 공간인식을 좌우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조계, 화계의 대비로 대변되

24) 서구에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다발하는 사회문제에 직면해서 도시에 대한 연구가 일찍 본격화되었다. 그 가운데 시카고학파로 지칭되는 도시사회학자들의 연구들이 주목되었는데, 예컨대 생태학의 기본원리를 도시사회에 응용해 인간생태학을 제창한 R. E. Park(사회적 실험실로서의 도시)과 그러한 인간생태학의 관점을 적용해 도시공간 구조론을 발전시킨 E.W.burges, H.Hoyt, E.L.Ullman, R.E.Dikinson 등 도시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화가 진행되었다. 大谷信介, 『<都市的なもの>の社會學』, ミネルヴァ書房, 2007, pp.81-92 1960년대 이후 앙리 르페브르, 미뉴엘 가스텔, 데이비드 하비, 에드워드 소자와 같은 도시지리학 등의 비판적 사회철학자들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도시공간 이론에 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배영수, 전계, pp.243-252

25) 王揖唐은 1919년 오사운동 직후 완성된 원고로 상,중,하편으로 구성되었다.. 상편은 조계의 연혁, 중편은 조계의 사범제도, 하편은 조계 掌故를 서술. 조계문제를 법리적인 차원에서 조계회수를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정리했다.(王揖唐, 『上海租界問題』, 上海商務印書館, 1924.) 夏晉麟은 조계의 기원, 토지장정의 연혁, 회심공당과 임시법원, 조계의 확대와 계외 도로, 조계 치리와 공부국 등 문제 서술. 조계의 역사와 현상을 간명하게 정리했다.(夏晉麟, 『上海租界問題』, 中國太平洋國際學會, 1932.) 徐公肅, 丘瑾璋의 『上海公共租界制度』(1933)가 있는데, 이는 1980년 蒯世勛의 『上海公共租界史稿』를 함께 묶여 『上海公共租界史稿』라는 이름으로 상해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또 국제법의 원칙에서 출발, 조계제도의 기형성 지적한 阮篤成的 『租界制度與上海公共租界』(法雲書屋, 1936)도 있다. 이러한 저작들은 모두 조계의 존재가 중국 주권에 대한 침탈이며 그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는 민족적, 국가적 경계가 일방 부각되었던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일전쟁이 전개되었던 이른바 고도(孤島) 시기, 상해의 도시 성장은 침체했으며 그에 대한 저술도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당시 저술도 소개서가 여전히 많이 출간되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인에 의한 저작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으로 이는 당시 일본 세력이 부상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해준다.<sup>26)</sup> 이 저작들은 대체로 일본의 부상에 따라 장차 이 도시의 경제, 제도 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sup>27)</sup>

상해통지관은 항전 시기에도 일정 활동을 지속했지만, 그 활동은 전 시기에 비해 위축되었다. 그들은 조계에서 영국상인 명의로 『通報』라는 중국어 잡지 발간했으며, 아울러 상해의 역사와 명승고적을 소개하는 글들을 발표했다.<sup>28)</sup>

1949년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민족모순, 계급투쟁적 과제를 중시하는 혁명사론의 영향 하에, 상해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브르조아지(또는 국민당)의 거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하에서도 이미 도시화 또는 경제성장의 면에서 앞서 있던 이 도시의 위상은 결코 무시될 수 없었던 바, 그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역사학 분야에서는 이 도시의 역사를 중국의 것으로 되돌리려는 노력들이 행해졌다. 그에 따라 이 도시를 배경으로 발생했던 태평천국, 신해혁명, 오사운동, 五卅運動 등 혁명운동에 관한 자료들이 잇따라 출간되었고<sup>29)</sup> 사회주의적 개조의 대상으로서 상해 경제에 관한 자료, 연구서들도 출판되었다.<sup>30)</sup> 이러한 자료집, 연구서들은 연구방법론이나 시각의 면에서 독창적인 의의는 적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고급 연구인력의 집중 동원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 작업으로 사료 면에서 매우 큰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서구학자들의 연구는 중국 학자들의 혁명사론적 연구에 비해 뚜렷한 실증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었다. 주목되는 연구로는 Jean Chesneaux, Marie-Claire Bergere 등 노

26) Fongtency, Jean, *Shanghai Secret*, Recit, Paris, Ed. Bernard Grasset, 1938; *Guide to Shanghai*, American Express Company Inc., 1940; Grancher, Marcel F., *Shanghai, Paris*, Raelais, 1945; Francois Pear, *L'Homme de Chang-Hai*, Paris, 1946; 米澤秀夫, 『上海史話』, 畝傍書店, 1942; 渡邊義雄, 『上海共同租界と工部局』, 日光書院, 1938; 內山完造, 『上海漫語』, 日本改造社, 1938; 內山完造, 『上海夜話』, 日本改造社, 1940; 內山完造, 『上海風語』, 日本改造社, 1941; 內山完造, 『上海霖語』, 大日本雄辯會講談社, 1942

27) 植田捷雄, 『支那に於ける租界の研究』, 巖松堂書店, 1941; Robert W. Barnett, *Economic Shanghai: Hostage to Politics, 1937-1941*, New York, Institute for Pacific Relations, 1941 이는 고도 시기 초기 상해의 경제적 영향 등 논술하면서, 일본 침략으로 인한 상해의 상업, 금융 중심지위의 하락을 논했다.; Ernest O. Hauser, *Shanghai: City for Sale*, harcourt, Brace and Company, New York, 1940 이는 조계를 둘러싼 상황 변화 속에서 상해와 상해에서 활약한 인물들의 특징과 사회적 변화 등 세밀하게 서술한 것으로, 越裔은 그 중역본을 上海大地出版社에서 1941년 출판했다.

28) 이 시기 상해통지관은 『上海事物溯源』, 『上海外交史話』, 『上海方志綜錄』, 『上海城隍廟』, 『上海人口志略』, 『上海勝迹略』, 『上海市年鑒』 등을 펴냈다. 상해통지관은 일시 해산되었다가 항전 이후 1945년 9월 회복되었고, 1946년 上海市文獻委員會로 개조되었다. 이후 상해시 문헌, 자료의 조사, 수집, 보관, 편인 사업을 진행했다. 상해시문헌위원회도 조직되어 일련의 편찬 활동을 전개했다.

29) 上海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上海小刀會起義史料匯編』, 上海人民出版社, 1961; 上海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辛亥革命在上海史料選輯』, 上海人民出版社, 1966; 上海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五四運動在上海史料選輯』, 上海人民出版社, 1960

30) 中國社科院上海經濟研究所, 『上海解放前後物價資料匯編(1921-1957)』, 上海人民出版社, 1958; 中國社會科學院上海經濟研究所,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編, 『恒豐紗廠的發生,發展與改造』, 上海人民出版社, 1958; 中國人民銀行上海市分行 編, 『上海錢莊史料』, 上海人民出版社, 1960; 上海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編, 『榮家企業史料』, 上海人民出版社, 1962; 上海市毛麻紡織工業公司毛紡史料組 編, 『上海民族毛紡織工業』, 中華書局, 1963; 上海市紡織工業局, 上海棉紡織工業公司, 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 『永安紡織印染公司』, 中華書局, 1964;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主編, 『上海民族機器工業』, 中華書局, 1966; 江南造船廠史編寫組, 『江南造船廠史』, 上海人民出版社, 1957

동계급, 자본계급 등에 관한 연구,<sup>31)</sup> 전통, 근대화에 관한 서구적 관심 하에서 행해진 상해 공상계, 문화계 인물들에 관한 연구<sup>32)</sup>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중국 학자들에 비해 실증적 측면은 높지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주제 선정에 있어서 계급적 관점, 서구와의 비교(근대화) 등 냉전시기의 긴장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시사 연구로서의 자기 인식은 약했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 서구 학자의 연구 가운데 오늘날 도시사 연구의 진행방향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연구들이 있다. 우선 Mark Elvin은 전통도시의 근대도시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상해에 관해 일련의 연구를 발표했다.<sup>33)</sup> 또한 William Skinner는 인류학적 조사를 통해 표준시장(standard market) - 중간시장 소도시(intermediate-market town) - 중앙시장 소도시(central-market town) - 지방 도시(local city) - 권역 도시(regional city) - 대구역(macroregion)로 연결되는 시장구조의 위계 속에서 도시 형성, 발전을 설명했다.<sup>34)</sup> 또한 Rhoads Murphey 등의 세계 자본주의 외부 세계와의 연관성 강화라는 상황 변화 속에서 상해의 도시 발전, 변화의 과정을 설명했다.<sup>35)</sup> 이 연구들은 상해를 둘러싼 공간지형에 주목하면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 속에서 도시를 바라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해의 근대도시로서의 출발은 그것이 국내, 국외 교역의 중요 결절점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위의 연구들은 각기 그것을 둘러싼 권역적, 초국적 스케일의 공간지형 속에서 그 도시 성장의 역사를 구성하면서, 그것을 단일도시를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도시 전통에 대한 분석으로, 도시화와 근대도시화의 맥락을 연결해보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시기에 내지의 도시화 진행이 활발치 않아 도시화와 근대도시화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약했으며, 둘째 대외적인 폐쇄 정책 하에서 도시 성장의 외적 계기는 크

31) Jean Chesneaux, *The Chinese Labor Movement from 1919 to 1927*,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이는 장 세노의 박사논문으로 상해를 위주로 서술. 상해 노동계급 연구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된다. 상해의 노동계급, 자본계급 연구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Marie-Claire Bergere를 들 수 있다. Marie-Claire Bergere, *Une Crise Financiere a Shanghai a la fin de l'ancien Regime*, Paris, Mouton, 1964; Marie-Claire Bergere, *La Bourgeoisie Chinoise et La Revolution de 1911*, Paris-La Haye, Mouton, 1968

32) Albert Feuerwerker, *China's Early Industrialization: Sheng Hsuan-Huai(1844-1916) and Mandarin Enterpris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Paul A Cohe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Wang T'ao and Reform in Late Ch'ing 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33) Mark Elvin, "The growth of market-towns in Shang-hai country, 1470-1910", *The Pattern of the Past*,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마크 엘빈, 『중국역사의 개발 형태』, 신서원, 1989); Mark Elvin and G. William Skinner ed., *The Chinese City Between Two World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34) Mark Elvin and G. William, eds., *The Chinese City Between Two Worlds*, Stanford, California, 1971; William Skinner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G. William Skinner,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24, No.1.(Nov., 1964), pp.3-43; Vol.24, No.2.(Feb., 1965), pp.195-228; Vol.24, No.3.(May, 1965), pp.365-399

35) Rhoads Murphey, *Shanghai: Key to Moder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 그는 183-1949년 간 상해의 도시 발전, 변화의 과정을 서술하면서 상해의 도시 변화발전은 중국이 세계 조류에 적응해가는 데 관건적 역할을 했다고 서술했다. Rhoads Murphey, "Treaty Ports and China's Modernization. What went Wrong?", *Michigan Papers in Chinese Study*, N.7,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71; Rhoads Murphey, *The Outsiders: The Western Experience in India and Chin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7

게 주목되지 못했다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지구화의 영향 하에서 그에 대한 주목의 계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개방 이전 상해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제를 남기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서구, 전통-근대의 이항적 대립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고, 이는 선입견 없이 그 도시 성장의 과정을 분석하는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는 것을 쉽지 않게 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상당한 기간까지도 민감한 논제로 남겨져 그 대립적 이항은 상해사 연구의 주요 담론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논리 재료들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해의 도시 성장을 단일도시로서 관찰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해를 둘러싼 공간지형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관찰하고 아울러 도시화와 도시근대화의 과정을 포괄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상해를 둘러싼 공간지형의 변화, 농촌-도시, 중국도시-서구도시 등의 관계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형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상해의 공간성을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III. 개혁개방 이후의 상해사 연구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사 연구는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도시 발전의 상대적 침체와 도시에 대한 민족적, 계급적 편견으로 인해 도시 연구의 발전도 주춤했지만, 이제 개혁개방으로의 국면 전환 하에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특히 학문적 교류를 통해 서구의 이론 특히 사회과학 이론들이 적극 원용되면서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도시학”이 발흥했다. 그 과정에서 역사학은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등 영역과 함께 도시 연구에 연결되었다. 상해, 천진, 중경, 무한 등 신흥 근대도시에 대한 연구는 國家社會科學“七五”計劃(7차5개년계획, 1986-1990)의 중점 연구항목이 되었다.<sup>36)</sup> 상해사 연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초점이 두어졌던 분야로, 자료, 연구, 이론 등 면에서 공히 급성장했다.

중국과 외국 학자들이 학문적 교류 속에 상해사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의 장들이 형성되었던 것은, 이 시기 상해사 연구의 시각과 이론을 형성해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정기 간행물인 『上海研究論叢』의 출간은 그러한 움직임을 잘 보여주었던 것으로, 1989년부터 중,외 학자들의 이에 대규모로 참여해, 다양한 주제에 걸쳐 활발히 논문을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sup>37)</sup> 이 시기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상해사 연구기관, 학회 조직이 크게 늘어났다. 국제학회 등 그들 상호 간의 학문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분교, 로스엔젤레스 분교, 코넬대학, 미시간대학 등에는 상해사 연구자들이 다수 모여 활발한 연구를 전개했다. 이들은 1995년에 *Journal of Asian Studies*에 상해사연구 특집호(54권 제1기, 1995.2.)를 발간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1990년 上海史研究會가 설립되어 조직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했는데, “上海建都700주년 국제학술대회”(1991년), “상해개항 1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1993년) 등에 참여해 중국학자들과 교류했다.<sup>38)</sup>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상해사 연구는 각기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

36) 張仲禮 主編, 『近代上海城市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90; 隗瀛濤 主編, 『近代重慶城市史』, 四川大學出版社, 1990; 羅澎偉 主編, 『近代天津城市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 皮明庥 主編, 『近代武漢城市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

37) 『上海研究論叢』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2집이 출간되었다.

38) 黃美眞 등 중국학자들은 『日本學者論上海史』(復旦大學出版社, 1993)를 출판해 이들의 연구를 소개했다.

고 할 수 있지만, 그 연구들이 적극 교류되면서 현재까지 상해사 연구는 어느 정도 국제적인 학문적 담론 체계를 형성해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편폭상 개혁개방 이후 양적, 질적으로 크게 진척된 상해사 연구를 자세히 정리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몇 주제를 둘러싼 논의들을 주목해볼 수 있다.

#### (1) 도시 성장의 추동력을 둘러싼 논의

중국 근대도시 성장이 추동력이 서구 자본주의의 외부적 역량에 의해 주로 발휘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자본주의맹아론”과 같이 중국 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동력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가설의 역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측면에서 서구 자본주의와의 접촉 이전에 중국에서 근대도시 성장의 조건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개혁개방 이후 상해사 연구에서 우선 직면했던 과제는, 근대도시의 성장을 중국사회의 성장과의 연관 하에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張仲禮 주편의 『近代上海城市研究』(上海人民出版社, 1990)는 이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접근 방식과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다. 여기서 그는 중국의 도시근대화의 추동력은 주로 외인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외인은 내인의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표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해인이 서구의 민주정치 사상, 도시관리방식, 기업관리방식 및 기술 등에 대한 학습, 이해, 창신을 통해서 내적 동력을 갖춰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상해의 도시근대화는 서구 자본주의에 의해 추동되었지만 동시에 그에 의해 촉진된 중국사회의 근대화라는 내적 역량이 함께 그 추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sup>39)</sup>

이러한 설명 방식의 전환은 중국 연구자들이 이 도시를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체적 시점을 확보해주었다. 상해가 서구 자본주의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서 근대도시로 진행해갔지만 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점차 내적 역량을 축적해왔음을 상정하게 됨으로써, 이 도시의 근대도시화를 서구 근대도시의 단순한 移植이 아니라 중국적 토양에서 자신들의 역사 내부로 가져와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화와 도시근대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조명해보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서구 제국주의의 외압이 도시화와 도시근대화 간의 맥락을 단절시킨 측면이 있었지만, 도시 성장의 내적 추동력의 축적은 양자를 다시 연결시킬 가능성을 확대되어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 상해는 양자강 하운과 동남연안 해운을 통한 중국 내지와의 연결 하에서 성장해왔던 도시였으며, 근대 이후에는 이러한 국내무역의 네트워크가 국제무역의 그것과 연결되면서 그 도시 성장의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중국 내지와의 연결성은 한편으로 서구 자본주의에의 종속성이 작용하면서 농촌과 상호 견인, 추동하는 자연스러운 도시화의 과정을 기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와 같이 중국사회의 내적 역량이 점차 회복되면서 그 도시 전통이 근대도시화의 과정으로 다시 연결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내지 농촌지역의 성장과 도시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측면은 더욱 부각되어갈 것이 분명하다.

#### (2) 도시공간의 구조와 기능 분화

39) 何一民은 중국 도시근대화를 기동, 발전시킨 동력은 외국자본주의 세력의 外力과 중국사회 내부의 구조변혁이 만들어낸 추동력인 內力の 두 측면이 있으며 그 이 양자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력을 형성해 중국도시의 근대화를 추동했다고 설명한다. 何一民, 『中國城市史綱』, 四川大學出版社, 1994



상해 도시공간의 구조와 기능을 그 사회적 과정과 연관해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계와 화계의 이원적 구도 또는 조계로 인한 기형화라는 관점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조계의 이중 역할”과 같은 표현과 같이,<sup>40)</sup> 상해의 도시공간을 보다 다원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내포를 허용하는 공간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 도시 공간에 대해 보다 세밀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었다.

개혁개방 이후 상해의 도시공간의 구조와 기능 분화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많은데, 그것을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범주로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공공조계, 프랑스조계, 화계의 이른바 “三界分治”의 분절화된 공간구조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들이 이어졌다. 공공조계와 프랑스조계 내 각 지역은 물론이고 현성, 갑북, 오송, 포동 등 화계 각 지역의 공간적 특성이 그 행정조직, 주민 구성 등의 차이와 연관해서 하나하나 해명되기 시작했다. 둘째 도시공간 간의 기능적 분화와 불균형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도시 성장의 기형화를 지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셋째 조계 당국의 시정관리, 중국 권력의 자치운동 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중·외 권력 간의 모방과 경쟁 그리고 공간을 둘러싼 경쟁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 (3) 각종 사회집단에 대한 연구

사회사 연구를 중심으로 상해의 다양한 사회집단에 관한 분석이 전개되었다. 사회사 연구는 서구 학자 특히 미국의 상해사 연구자들에 의해 이끌어졌던 경향이 강했다. 帮派, 會館, 公所, 同業公會, 同鄉會 등 다양한 동향, 동업집단과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성과들은 상해의 다양한 사회집단과 그 사회활동 방식, 원리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도시공간 형성과 변형을 보다 다원적,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자본가, 노동자 집단에 대한 연구들로, 상해자본가 집단과 정치권력의 밀착이라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양자 간의 갈등적 측면을 드러내 독자적 사회집단으로서 상해자본가 집단을 부각시킨 Parks M. Coble Jr.의 연구,<sup>41)</sup> 오사운동, 오삼십운동, 삼차무장기의, 문화대혁명 등 혁명운동 과정에서 상해노동자 집단이 담당했던 특별한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Elizabeth Perry의 연구<sup>42)</sup> 등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계급적 관점에서 보다 자유롭게 상해 자본가, 노동자 집단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냄으로써, 중국 학자들이 혁명사론을 넘어서 이에 관해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청방 등 방회, 창기, 동향조직, 소북인, 동업조직, 경찰과 범죄 등 다양한 연구들이 전개되었다. Brian G. Martin은 조계와 화계의 범죄 환경의 특성과 관련해서 청방의 활동을 분석했다.<sup>43)</sup> Gail Hershatte는 폭넓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창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를 분석했다.<sup>44)</sup> Bryna Goodman은 회관,公所, 동향회 등 상해 동향조직의 형성, 변화, 기능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근대 상해에서 동향조

40) 熊月之, 「論上海租界的雙重作用」, 『史林』 1987-7

41) Parks M. Coble Jr., *The Kuomintang Regime and the Shanghai Capitalists, 1927-1937*,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美]小科布爾 著, 楊希孟 譯, 『上海資本家與國民政府 1927-1937』,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6

42) Elizabeth Perry, *Shanghai on Strike, the Politics of Chinese Labo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Elizabeth Perry & Li Xun, *Proletarian Power: Shanghai in the Cultural Revolution*, Westview Press, 1997

43) Brian G. Martin, *The Shanghai Green Gang, Politics and Organized Crime, 1919-193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96

44) Hershatte, Gail, *Dangerous Pleasure, Prostitution and Modernity in Twentieth Century Shanghai*, University of California, 1997

직이 전통과 현대, 향촌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모아놓은 상호모순적 집단으로 변화해갔음을 드러냈다.<sup>45)</sup> 또한 Emily Honig는 상해 사창 여공집단 내 존재하는 사회적 지위, 관적, 방언에 따른 다양한 과별의 존재에 대한 분석과 상해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북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형성, 고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각기 진행했다.<sup>46)</sup> Hanchao Lu(盧漢超)는 상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해사회의 근대화가 지향형이 아닌 일상의 선택 차원의 문제임을 밝혔다.<sup>47)</sup>

이러한 연구들은 상해 도시공간의 형성, 변형에 개입하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존재와 그 상호 경쟁, 협력의 원리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점에서 중국 도시사의 이론과 방법론을 보다 구성할 수 있는 재료들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는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해를 각종 사회집단의 이해가 충돌, 경쟁하는 장(場)으로서 해석하는 근래의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진화의 방향을 엿볼 수 있게 한다.<sup>48)</sup>

현재 중국 학자들은 서구 학자들의 연구들에 자극을 수용하면서 풍부한 연구 성과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상해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외국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上海史研究譯叢”으로 번역, 출판하여 중국 연구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sup>49)</sup> 이후 중국 학자들은 도시상해의 복잡성,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보다 세분화된 범주에서 도시 사회, 일상, 문화 등에 관해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2008년 출판되고 있는 “上海城市社會生活史叢書”는 이러한 작업의 성과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과들이다.<sup>50)</sup>

#### (4) 정체성과 도시문화

도시공간과 연결된 도시민의 존재에 초점을 두고 상해인의 지역정체성과 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상해는 다양한 국적, 관적의 이민자들이 모인 이민사회로, 상해인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이나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본래 별로 없었다. 이후 이 도시의 주민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점차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획득하게 되었지만, 식민주의와 사회주의적 개조를 거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개혁개방 이후 연구자들은 점차 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樂正은 도시사, 心態史의 관점에서 중국, 서구 문화의 이중구조 하에서 상해인들이 획득하게 된 문화횡단적인 사회심리를 묘사했으며,<sup>51)</sup> 忻平은 도시화, 현대화라는 상해의 공간, 시간적 변화 속에서 중국인들이 전통인, 외지인에서 근대인, 상해인으로 사회화되었던 과정을 설명했다.<sup>52)</sup> 아울러 楊東平은 정통학자가 아닌 기자로서 근대도시로서의 부상 이후 개혁개방 시기까지 상해 문화를 북경 문화와의 비교적 관점을 통해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대중적

45) Bryna Goodman, *Native Place, City and Nation, Regional Networks and Identities in Shanghai, 1853-193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95

46) Emily Honig, *Sisters and Strangers: Women in the Shanghai Cotton Mills, 1919-1949*,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Emily Honig, *Creating Chinese Ethnicity: Subei People in Shanghai, 1850-1980*, Yale University Press, 1992

47) Lu Hanchao, *Beyond the Neon Lights: Everyday Shanghai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48) Nara Dillon and Jean C. Oi, *At the Crossroads of Empires: Middlemen, Social Networks, and State-Building in Republican Shanghai*,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49) Frederic Wakeman Jr., 小浜正子, 黃紹倫, 梁元生, 劉建輝, Christian Henriot, Bryna Goodman, Hanchu Lu, Emily Honig 외 다수 저자의 연구들이 번역, 소개되었다.

50) “上海城市社會生活史叢書”는 熊月之가 이끄는 上海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를 중심으로 文學研究所, 宗教研究所, 復旦大學 歷史系, 華東師範大學 歷史系, 東華大學, 上海市檔案館 등의 주요 상해사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총 28권으로 기획되었다.

51) 樂正, 『近代上海人社會心態(1860-1910)』, 上海人民出版社, 1991

52) 忻平, 『從上海發現歷史 - 現代化進程中的上海人及其社會生活』, 上海人民出版社, 1996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sup>53)</sup> 이러한 지역정체성 논의는 한편으로 개혁개방 이후 위상이 강화되고 있던 상해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sup>54)</sup>

“올드 상하이 노스텔지어(Old-Shanghai Nostalgia)”라고 지칭되는 것과 같이 1920-30년대 조계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시공간에 대한 집단적 향수 현상도 나타났다.<sup>55)</sup> 이는 사회주의 중국 하에서 억압되었던 자본주의적 사회상과 문화를 근대성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한 리어우판의 경우와 같이,<sup>56)</sup>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적 전환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개방 이후 연구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펼쳐지는 생태적 실험실로서 도시상해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일본 상해사연구회는 일찍부터 이러한 상해의 특성을 “크리올(creole) 상해”라는 키워드로 규정하고 그 속에서 진행된 중국과 서구의 문화적 융합 현상에 주목했다.<sup>57)</sup>

한국 학계의 상해사 연구는 1980년대 한국사회의 상황을 일정 반영하면서 그 민족운동, 혁명운동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의 혁명사론적 관점과는 거리를 두고 서구 학계 등의 성과들을 수용하면서, 상해를 주요 무대로 한 민족운동, 혁명운동에 대해 도시상해의 특성을 반영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초기에는 자본가, 노동자, 학생운동의 도시정치에 관한 분석들이 주로 진행되었다.<sup>58)</sup> 이후 사회사 연구 등의 영향으로 도시공간, 도시민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sup>59)</sup> 생존원리로서 동향망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sup>60)</sup> 등이 이어졌다. 또한 국가-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위생의 법제화,<sup>61)</sup> 근대 권력

53) 楊東平, 『城市季風 - 北京和上海的文化精神』, 東方出版社, 1996 양동평은 10년 뒤인 2006년 일부 내용을 증보해 재판을 펴냈다. 楊東平, 『城市季風 - 北京和上海的文化精神』, 新星出版社, 2006; 양동평 지음, 장영권 옮김, 『중국의 두 얼굴 - 영원한 라이벌, 베이징 VS 상하이 두 도시 이야기』, 펜타그램, 2008

54) 예컨대 2001년 9월 戴志康이란 강소 출신 민영기업가가 상해 연구자들을 모아 개최한 “신상해인” 학술대회는 그 일례였다. 上海證大研究所 編, 『新上海人』, 東方出版社, 2002.3.; 上海證大研究所, 『上海人』, 學林出版社, 2002.12.

55) 拙稿, 「근대 상하이 도시 공간과 기억의 굴절」,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1집, 2009.3.pp.115-118 참조

56) Leo Ou-fan Lee, *Shanghai Modern: The Flowering of a New Urban Culture in China, 1930-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美]李歐梵 著, 毛尖 譯, 『上海摩登 - 一種新都市文化在中國, 1930-1945』, 北京大學出版社, 2001; 리어우판 저, 장동천 외역, 『상하이모던 - 새로운 중국 도시 문화의 만개, 1930-1945』, 고려대학출판부, 2007

57) 高橋孝助, 古廬忠夫 編, 『上海史 - 巨大都市の形成と人々の営み』, 東方書店, 1995; 日本上海史研究會 編, 『上海人物誌』, 東方書店, 1996 상해사연구회의 이러한 접근 입장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상해가 아닌 상해”가 되어버린 상해에 대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켜 그 도시 역사에 대한 ‘지분’을 찾아보려는 취향도 없지 않다.

58) 김승욱, 「북벌시기 상해자치운동에 관한 일고찰 - 상해각마로상계총연합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46, 1994; 김태승, 「1930년대 이전 상해 공공조계의 지배구조와 華人參政運動」, 『동양사학연구』 58, 1997; 이병인, 「1926년 상해의 자치시 건립운동」, 『중국학보』 45, 2002; 전인갑, 「1920년대 상해 노동계의 ‘통합’과 5.30운동」,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2000; 전인갑, 「자치운동, 북벌과 상해 노동계 ‘통합’의 와해」, 『동아시아역사연구』 제7,8합집, 2000; 정문상, 「국공합작 이전 상해 중국사회주의청년단의 청년운동 모색과 그 실상」, 『東洋史學研究』 제67집, 1999; 정문상, 「북벌기 상해지역 청년학생의 정치적 동향」, 『동아시아역사연구』 제4집, 1998; 鄭文祥, 「論五卅運動前後上海學生運動的統一和分化」, 『學術月刊』 第370期, 2000; 鄭文祥, 「從非政治性的社會運動到國民革命 - 重新探討五四後上海學生運動的軌跡」, 『近代中國』 第146期 2001; 정문상, 『中國의 國民革命과 上海學生運動』, 해안, 2004; 천성림, 「1920,30년대 상해 면방직 공장 여성 노동자의 상태」, 『동아시아역사연구』 제2집, 1997; 권현주, 「5.30 전후 상해의 여성운동 - 여성노동자의 주체세력과 과정을 중심으로」, 『梨大史苑』 32, 1999

59) 김태승, 「근대상해의 도시구조 - 인구구성과 공간배치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55, 1997; 김승욱, 「근대 상하이 도시 공간과 기억의 굴절」,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1집, 2009.3.; 이병인, 「상해 ‘도시민’의 형성: 이주, 적응 그리고 생존」, 『중국근현대사연구』 27, 2005

60) 전인갑, 「1920년대 상해 노동자 사회와 지연망의 기능 - 도시사회 적응기제로서의 동향망구」, 『동

과 사회 형성,<sup>62)</sup> 경제제도와 노동자관행, 상관행 등 규범,<sup>63)</sup> 국가법과 관습법<sup>64)</sup>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中國近現代史學會는 2002년 12월 부산에서 “20세기 초 상해사회와 근대성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해 그 간의 논의를 종합하려는 시도를 행한 바 있는데, 그것을 통해 연구자들은 근현대 상해사회에서 전통과 현대의 중첩적 관계 혹은 연속성에 대해 확인했다.<sup>65)</sup>

국내 학계를 포함해서 서구, 일본 학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양성을 내포한 상해사회에서 근대적 또는 그 대안적 가치를 찾아내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시민사회(Civil Society), 공론장(Public Sphere), 다문화적 근대성(multi-cultural modernity)과 같은 가치는 그 논의의 중심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66)</sup>

그런데 중국 국력의 “崛起”와 서구에 대한 극복과 대안 모색이라는 중국 근현대사의 과제와 관련해서, 중국 학자들 내에서는 이러한 서구적 가치의 전유를 통해 서구에 대한 중국사회의 역량 성장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그 논의를 수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개혁개방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중국의 대외적 위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그러한 움직임은 서구적 이상전형과 다른 중국적 이상전형으로서 이른바 “상해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갔다. 상해사 분야의 원로, 중견학자들이 모여 주변문화로 간주되어온 상해문화가 근대 중국 신문화의 중심으로 화해가는 과정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으며,<sup>67)</sup> 상해의 문화, 도시정신에 대한 배육을 통해 상해모델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략적 주장도 등장했다.<sup>68)</sup> 이러한 경향은 상해사 연구가 도시 자체에 대해 초점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그 위에 다시 민족주의적 필터를 씌울 위험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사학연구』 62, 1998; 전인갑, 「근대도시 상해의 발전과 동향, 동업단체 - 지연망의 사회적 기능의 지속성과 그 변천」, 『외대사학』 제9집, 1999; 전인갑, 「1930년대 상해 노동자사회와 동향, 동업망」, 『동양사학연구』 제72집, 2000; 전인갑, 「상해 ‘노동단체’의 정치화와 지연망」, 『중국학보』 제43집, 2001; 전인갑, 「20세기 전반기 上海社會의 地域主義와 勞働者 -傳統과 近代의 重層的 移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이병인, 「1920년대 상해의 동향관계와 사회단체」, 『역사학보』 164, 1999; 이병인, 『근대 상해의 민간단체와 국가』, 창비, 2006; 김승욱, 「상해 상인사회 동향 네트워크의 근대 이행」, 『중국사연구』 37, 2005; 김승욱, 「上海銀行公會(1918-1927) -近代銀行의 同業組織과 지향」, 『중국사연구』 제17집, 2002; 정문상, 「1920년대 전반기 상해지역 학생운동의 전개와 동향회」, 『中國現代史研究』 5, 1998

61) 배경한(2003), 「1920,30년대 상해의 위생 - 위생의 법제화와 과학화-」, 『중국근현대사연구』 제17집, 2003.3

62) 김태승(2003), 「기율과 경쟁 - 1930년대 상해 유민습근소의 유민관리」, 『동양사학연구』 85, 2003; 김태승, 「민국시대, 상해인 의식의 형성과 시장체제」, 『중국학보』 제43집, 2001

63) 전인갑, 「민국시기 中, 外기업의 기업구조와 노자관계」, 『역사문화연구』 제14집, 2001; 전인갑, 「중국 근대기업과 전통적 상관행」, 『동양사학연구』 제90집, 2005.3.; 전인갑, 「중국 근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합과관행」,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8집, 2010.12; 김승욱, 「북경정부시기 상해 은행업의 제도적 지향 - 폐량개원과 회회제도를 중심으로-」, 『중국현대사연구』 제11집, 2001.6.; 김승욱, 「20세기 초 상해 금융업의 어음결산관행」, 『중국사연구』 제25집, 2003.8.

64) 김승욱, 「근대 상해의 어음결산 제도와 법제 건설」, 『전북사학』 제37호, 2010.10; 김승욱, 「20세기 전반 상해 은전업과 은행 법제 - 관습법과 국가법의 충돌」, 『중국사연구』 제68집, 2010.10.

65) 배경한 엮음, 『20세기초 상해인의 생활과 근대성』, 지식산업사, 2006

66) 小浜正子, 『近代上海の公共性と國家』, 研文出版, 2000 社團을 중심으로 한 상해사회의 형성. 그 속에 국가에 대한 상해 지역의 공공성 형성에 대한 분석.; Wen-hsin Yeh ed., *Becoming Chinese - Passages to Modernity and Beyo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p.4-7

67) 上海高校都市文化E研究院 編, 蘇智良 主編, 『上海: 近代新文明的形態』, 上海辭書出版社, 2004. 주변(邊緣)문화로서 간주되던 상해문화가 근대중국 신문화의 중심 지위로서 성장해갔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68) 尹繼佐 主編, 『培育上海城市精神』(2004年上海文化發展藍皮書),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4; 王文英, 蒯大申 主編, 『文化體制改革與上海文化建設』(2005年上海文化發展藍皮書),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5; 張忠民 主編, 『近代上海城市發展與城市綜合競爭力』,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4

근대상해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민족주의적 과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은 당연하다. 사실 중국뿐 아니라 각 지역의 학자들도 해당 국가의 시점에서 출발한 관심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sup>69)</sup> 그렇지만 이제 도시사로서 상해사는 그 도시공간과 도시민에 대해 초점을 유지하면서 그 이론, 방법론을 확장해감으로써 보다 깊은 논의를 이끌어가도록 궁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단일도시가 아니라 국내, 국외의 다른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확대된 공간 속에서 상해의 도시적 성장의 의미를 설명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이 도시 주민의 공간 인식에 작용해온 보다 다양한(중층적인) 공간 형성의 원리를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 상해를 보다 입체적,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도 중국의 도시화와 근대도시화의 단절선을 다시 잇고 그 속에서 도시상해의 위상을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V. 지구화(globalization)와 도시공간의 중층적 맥락

중국에서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도시화와 도시근대화 간에 일정 단절의 현상이 있었다. 도시가 농촌을 견인하고 농촌이 도시를 추동하는 도시-농촌 관계와 전통도시의 근대적 전환과 같은 역사적 전개는 굴절되거나 기형화되고, 근대도시는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 하에 좌우되거나 서구 근대도시의 이식과 같은 형태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상해는 그 전형적인 예였다. 서구, 근대를 대변하는 조계의 도시공간은 상해의 성장을 이끌었던 중심 축이었으며 중국인들에게 그에 대한 극복 또는 학습의 상대로 부각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상해인들의 공간 인식은 국가적, 민족적 경계로 나뉘어지는 이원적 구도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한 이원적 구도를 벗어나 도시공간의 복잡성, 다원성을 드러내는 것은 개혁개방 이후 상해사 연구의 주요 과제였다.

그런데 개혁개방의 성과가 나타나고 중국사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상해는 더 이상 단일도시로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화살촉”으로 비유되는 것과 같이 상해는 중국 전체를 이끄는 선진 도시가 되었고, 그 속에서 그것을 내지 농촌의 성장 또는 도시화와의 연관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상해는 양자강 하운과 동남연해 해운 등으로 연결된 내지 농촌, 도시 지역과 결코 무관한 단일도시로 남아 있을 수 없었다.

또한 지구화의 전개 속에서 상해는 중국에서 국외 지역과의 초국적 연계가 가장 활발한 도시가 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상해는 세계 금융기관들이 모두 진출해 있는 금융 중심이며, 그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물적,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였다. 이 점에서 그 도시 성장의 국외적 계기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근대 이후 상해를 둘러싼 초국적 연관성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가에 대해서도 역사학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키너의 권역 도시 연구가 다시 주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sup>70)</sup> 스

69) 예컨대 일본의 경우 전진 중국에서의 일본, 일본인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 속에는 전후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유지되고 있지만 민족주의적 관심이 향후 어떤 굴절을 만들어낼지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高綱博文, 『〈國際都市〉上海のなかの日本人』, 研文出版, 2009; 日本上海史研究會 編, 『建國前後の上海』, 研文出版, 2009; 古廐忠夫, 『日中戦争と上海, そして私 - 古廐忠夫中國近現代史論集』, 研文出版, 2004; 高綱博文, 『戦時上海 1937~45年』, 研文出版, 2005; 大里浩秋, 孫安石 編, 『中國における日本租界 - 重慶, 漢口, 杭州, 上海』, 御茶の水書房, 2006

70) [美]施堅雅 主編, 葉光庭 等譯, 陳橋驛 校, 『中華帝國晚期的城市』, 中華書局, 2000

키너는 현성을 상수로 파악하는 등 중국 근대도시에 대한 배버적 편견의 흔적이 남아 있고, 지리결정론적인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중국 도시화의 전개를 중국사회의 내적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로 매우 주목되는 연구다. 권역도시(region-city)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sup>71)</sup> 중국 학자들의 이를 권역도시사 연구의 출발점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권역의 공간지형과 도시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색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권역의 범위, 권역 내의 도시체계, 도시군체, 도시-농촌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관점을 확보함으로써 스키너 연구의 차원을 넘어, 중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권역도시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sup>72)</sup> 예컨대 劉海岩은 권역도시 연구의 대상은 하나 또는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내부구조 기능이 일체화된 개형 공간단위임을 강조하면서, 구역도시 연구는 마땅히 구역 발전의 주기적 변화의 도시화에 대한 영향, 권역도시 체계의 구조적 특징, 권역 간 도시체계의 차이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73)</sup>

권역적 공간에서 도시 상해를 조명하려는 작업은 일찍부터 시도되었다. 張仲禮, 熊月之 등은 이미 1990년대 이후 동남연해 도시들을 도시군으로 보고 그에 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sup>74)</sup> 1996년에는 哲學社會科學“八五”期間(8차5개년계획, 1991-1995) 國家重點研究課題로 상해, 영파, 복주, 하문, 광주 등 동남연해 도시들을 도시군으로 묶어 『東南沿海城市與中國近代化』라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sup>75)</sup> 또한 이들은 2002년에 『長江沿江城市與中國近代化』를 통해 연해뿐 아니라 연강 도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넓혀 권역 차원의 분석을 전개했다.<sup>76)</sup> 아울러 권역도시와 주변 농촌 간의 관계를 지적하는 연구들도 주목된다.<sup>77)</sup>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못하다.

근대 상해의 성장을 이끈 주요 추동력이 서구 자본주의의 외적 역량에 있었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사실이었지만 상해사 연구에서 금융, 무역 등 몇몇 분야의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외적 역량이 작용하는 초국적 범주의 공간에 대해서는 그리 적극적인 분석이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지역에 침입한 외적 역량에 의해 야기된 도시공간의 기형화에 대한 지적들은, 이 도시 내부에 공간적인 범주가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 근현대 역사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국민국가적 패러다임을 초월해 초국적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sup>78)</sup> 또한 지리학 등 여타 분야에서 지구화가 중국 도시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sup>79)</sup> 도

71) 任遠, 陳向明, [德]Dieter Läßle 主編, 『全球城市-區域的時代』, 復旦大學出版社, 2009

72) 隗瀛濤, 謝放, 「近代中國區域城市研究的初步構想」, 『天津社會科學』1992年 第1期; 萬靈, 「中國區域史研究理論和方法散論」, 『南京師範大學學報』1992年 第3期; 羅樹偉, 「試論近代華北的區域城市系統」, 『天津社會科學』1992年 第5期; 周俊旗, 「關於近代區域城市系統研究的幾個問題」, 『天津社會科學』1994年 第5期

73) 劉海岩, 「近代中國城市史研究的回顧與展望」, 『歷史研究』1992年 第3期

74) 張仲禮, 「上海城市經濟近代化及對長江流域經濟的影響」, 『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1992年 第3期; 隗瀛濤, 謝放, 「上海開埠與長江上游城市系統與市場結構」, 『近代史研究』1991年 第6期; 熊月之, 潘君祥, 「論東南沿海城市與中國近代化」, 『史林』1995年 第1期; 茅家琦, 「長江下游城市近代化的軌迹」, 『湖北大學學報』1994年 第3期

75) 張仲禮 主編, 『東南沿海城市與中國近代化』, 上海人民出版社, 1996

76) 張仲禮, 熊月之, 沈祖煒, 『長江沿江城市與中國近代化』, 上海人民出版社, 2002

77) 戴鞍鋼, 「近代上海與周圍農村」, 『史學月刊』1994年 第2期; 沈毅, 「近代旅, 大租借地的農業與城鄉關係研究」, 『華東師範大學學報』1992年 第3期

78) 久保亨, 「全球化的奔流と主體としての中國」, 飯島涉, 久保亨, 村田雄二郎 編, 『シリーズ20世紀中國史 3 グローバルと中國』, 東京大學出版會, 2009, pp.1-7 참조

79) Fulong Wu ed., *Globalization and the Chinese City*, Routledge, 2006; Fulong Wu, Jiang Xu, and Anthony Gar-On Yeh, *Urban Development in Post-Reform China: State, market, and*

시사 영역에서도 초국적 공간에 대한 관심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세계체제론”의 동아시아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濱下武志 등의 “동아시아 지역네트워크론”<sup>80)</sup>에 기반을 둔 “상해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상해를 둘러싼 초국적 공간을 염두에 둔 하나의 논의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sup>81)</sup>

상해사 연구에서 공간적 맥락을 도시 내부를 벗어나 외부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이 도시 주민들이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외부로부터 발원한 다양한 공간인식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상해는 세계 각 국가, 중국 내 각 지역들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인구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민사회였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도시 내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송출지와 이 도시를 포괄하는 공간 속에 위치한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도시공간을 형성, 변형해가는 과정은 그들의 다양한 공간인식들이 서로 접경하거나 연결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상해사에서는 몇 가지 중층적인 공간인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요컨대 지역적(local), 국가적(national), 권역적(regional), 초국적(transnational) 공간 등이다.<sup>82)</sup> 이 가운데 앞서 부각되었던 것은 조계와 화계의 대비로 대변되는 국가적 공간이었으며, 이후 여러 사회집단에 대한 사회사, 일상사적인 연구가 축적되는 가운데 지역적 공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목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단일도시로서의 연구가 집중되면서 권역적, 초국적 공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두어지지 못했지만 근래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sup>83)</sup> 향후 상해사 연구에서 이러한 공간 원리들이 동시 작용하는 도시공간의 중층적 맥락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 V. 맺음말

도시사가 역사학의 한 분야로서 그 학문적 시민권을 확보해오는 과정에는 도시의 공간성에 대한 인식적 심화가 있었다. 오늘날 도시화의 가속화와 함께 도시 인구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형성하는 도시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경험해가고 있다. 특히 지구화는 도시를 보다 복잡해진 공간지형 위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도시공간에

---

space, Routledge, 2007; Fulong Wu ed., *China's Emerging Cities: The making of new urbanism*, Routledge, 2007

80) 濱下武志 編, 『東アジア世界の地域ネットワーク』, 山川出版社, 1999; 濱下武志, 『朝貢と條約』,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1997; 濱下武志, 川勝平太 編, 『アジア交易圏と日本工業化 1500-1900』, 藤原書店, 2001.

81) 古田和子, 『仁川貿易をめぐる日中商人と上海ネットワーク -1890年代初期東アジア地域經濟論』, 『三田學會雜誌』 92-1, 1999; 古田和子, 『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2000

82)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지리적 구조에 관한 발상은 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지형을 그려보는 데 도움을 준다. 브로델은 지중해 세계를 지리학적으로 조망하면서 “거의 변하지 않는” “장기지속”의 구조, “중기지속”의 집단과 조직의 국면, 단기적인 사건 등 세 개 수준의 역사적 변화를 상징했다. 그의 발상은 그가 의도했던 “지중해 세계의 유기적 전체성에 대한 파악”에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내려지고 있지만, 역사적 변화를 공간적 차원에서 풀어내려고 했던 시도로 여전히 참조할 만하다. Bernard Bailyn, “Braudel's Geohistory - A Reconsidera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1: 1(Jan.1978), pp.277-282

83)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근대 동아시아 권역에서 중화 “제국”과 일본 “제국”이 형성하는 공간적 구도가 이 도시 속 한인들의 공간 인식에 투영되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지역, 국가, 권역, 초국적 차원의 공간이 그 공간 내에 위치한 행위자(agency)의 입장과 교차하면서 중층적 구도를 이룬다는 점을 밝히려고 했다. 김승욱, 『20세기 초반 韓人의 上海 인식 -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4집, 2012.6

대한 인식을 더 심화해다는 것은 도시사 연구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간 상해사 연구에서 그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심화되어 왔으며 아울러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중국 근대도시사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전망해보려고 했다.

근대 중국에서는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도시화와 근대도시화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했다. 근대 상해는 서구에 의해 이식된 조계 공간을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이는 중국 전통의 화계 공간과 이질적으로 대비되면서 이 도시의 공간을 이원적으로 분절화했다. 그에 따라 서구-중국, 근대-중국의 이원적인 구도는 그 도시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되었다. 개혁개방 이전까지 상해의 도시공간에 대한 시각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도시화의 가속화와 대외적 개방이라는 변화된 국면 하에서 상해사 연구는 크게 진전되었다. 도시성장의 추동력, 도시공간의 구조 및 기능 분화, 각종 사회집단, 정체성과 도시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집단이 상호 경쟁하는 생태적 실험실로서 도시 상해의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 국력의 “崛起”와 근대 이래 중국사회의 민족주의적 과제의 연속선 상에서 이전 시기의 이원적 구도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으며, 도시사로서 그 도시 자체에 대한 분석은 그 연구방법론과 시각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상해를 단일도시로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 상해는 개혁개방과 지구화와의 접촉 하에서 농촌 성장, 도시화와 단절선을 다시 연결해야 하며 또한 국외 지역과의 초국적 연계도 확대되고 있다. 이 점에서 상해사 연구는 그 공간적 맥락을 도시 내부를 벗어나 외부로 확대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해 주민들이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다양한 공간인식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식들이 발원하는 공간적 범주를 시야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기존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공간 외에 권역적, 초국적 공간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러한 중층적인 공간 원리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도시공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 근대도시사 자체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내어지는 다양성과 동태성은 서구 중심의 기존 도시사 이론과 방법론을 경험론적으로 검증해 보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